

#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 제23화 다섯명의 고행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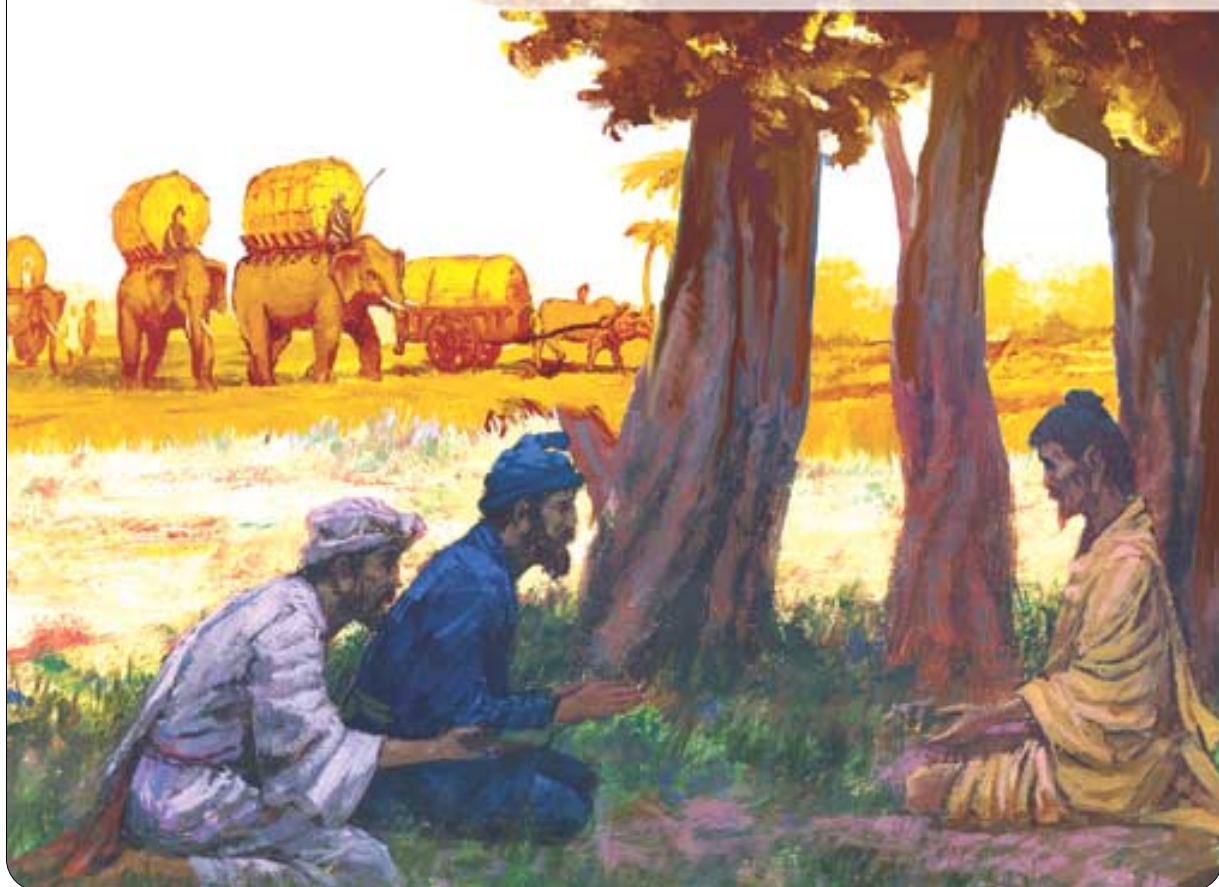
그들은 트라푸사(Trapusa)와 발리카(Bhalika)형제였다. 오랜 여행에 목이 마른 코끼리들을 위하여 물을 찾아 왔다가 붓다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저기 저 목욕을 마친 사문을 보라. 우리가 장사차 천하를 돌아본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저처럼 깨끗한 성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가 서둘러 저 사문께 공양하고 그의 축복을 받는 것이 좋겠다."

"저희 형제의 정성이 담긴 꿀에 볶은 밀을 공양(供養)으로 올리니 큰 사문께서는 부디 받아주소서."

이 분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느 사문(沙門, Sramana)과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두 상인 형제는 붓다의 법에 귀의(歸依)하겠다고 간청하여 최초의 우파사카(Upasaka, 在家信徒)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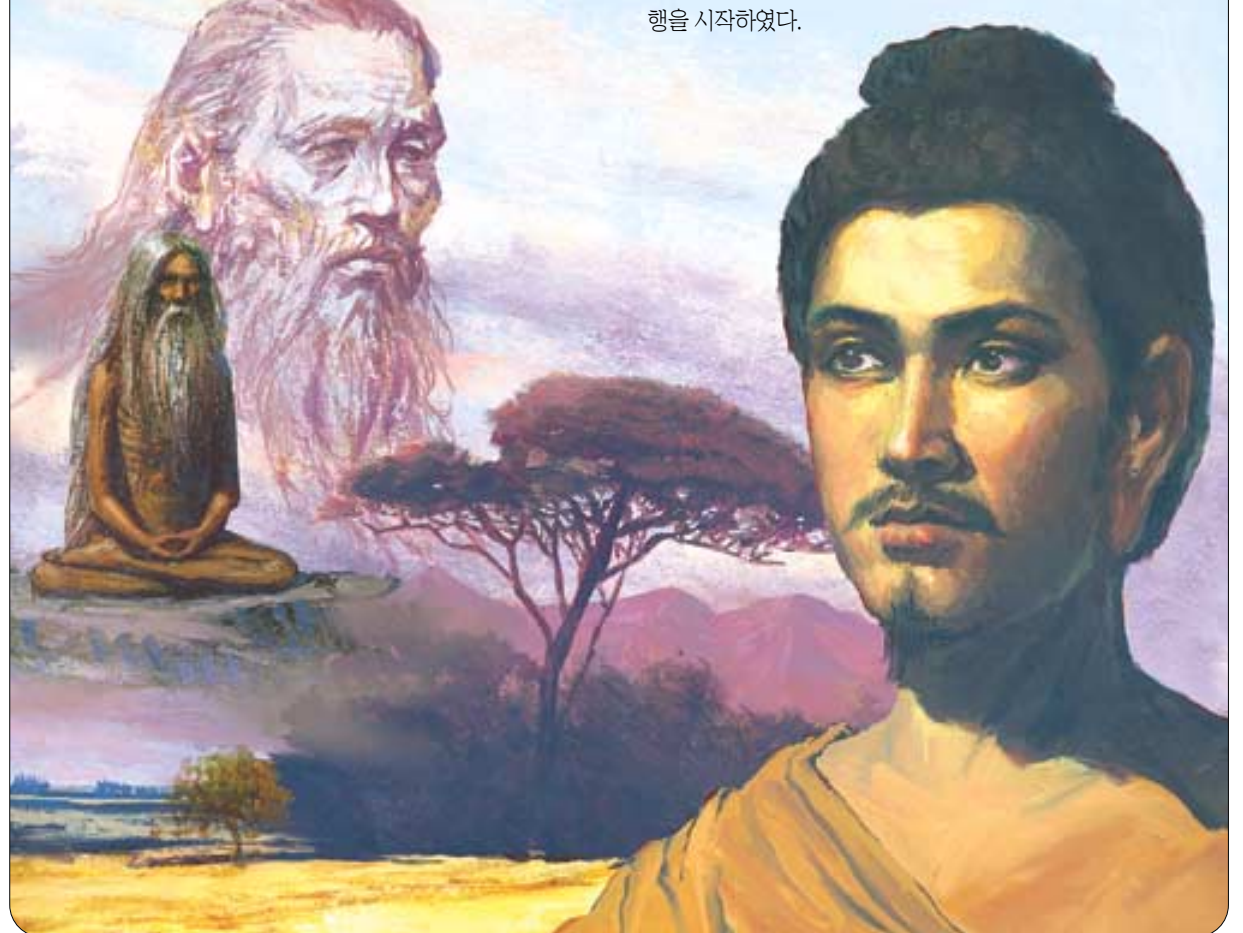
"너희 형제가 진정코 불법에 귀의한다면 다음 십계(十戒)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첫째,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셋째,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째, 몸에 향을 바르지 말라. 일곱째, 종류에 물리지 말라. 여덟째, 높은 의자에 앉지 말라. 아홉째, 간식을 하지 말라. 열번째, 금은보화를 탐내지 말라."

상인이었던 트라푸사(Trapusa), 발리카(Bhalika)형제는 불교에 귀의한 첫번째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기들 생업을 버리지 않고 불교에 귀의한 남자 신도들로서 우파사카라 하는데 한문으로는 우바새(優婆塞)라고 한다. 우파사카는 남신도(男信徒)를 가리키고 여자 신도는 우바이(Uasika)라 부른다. 이들은 모두 집에서 생활 하면서 불교에 귀의하고 출가수행자들을 공양하는 신도들이라는 말이다. 불교는 이들의 뒷받침으로 인하여 후일에 크게 교단을 만들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성불의 꿈을 이룬 사카무니 붓다는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밧고된 길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 사카무니 붓다는 그의 법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다. 법문의 미묘하고 깊은 진리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치 밝은 햇빛이 솟아오를 때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먼저 비추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그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그레도 그의 스승이었던 '알라칼라마(Alarakalama)'가 제일이었다. 그러나 붓다가 그를 찾아갔을 때 스승 알라타 선인은 고행으로 이미 세상을 뜬 후였다. 실망한 붓다는 다시 생각을 해보니 역시 또 한명의 스승인 '웃다카 라마푸타(Uddakaramaputta)'가 제일 산봉우리에 근접해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붓다의 도학을 기다리지 못한 채 떠나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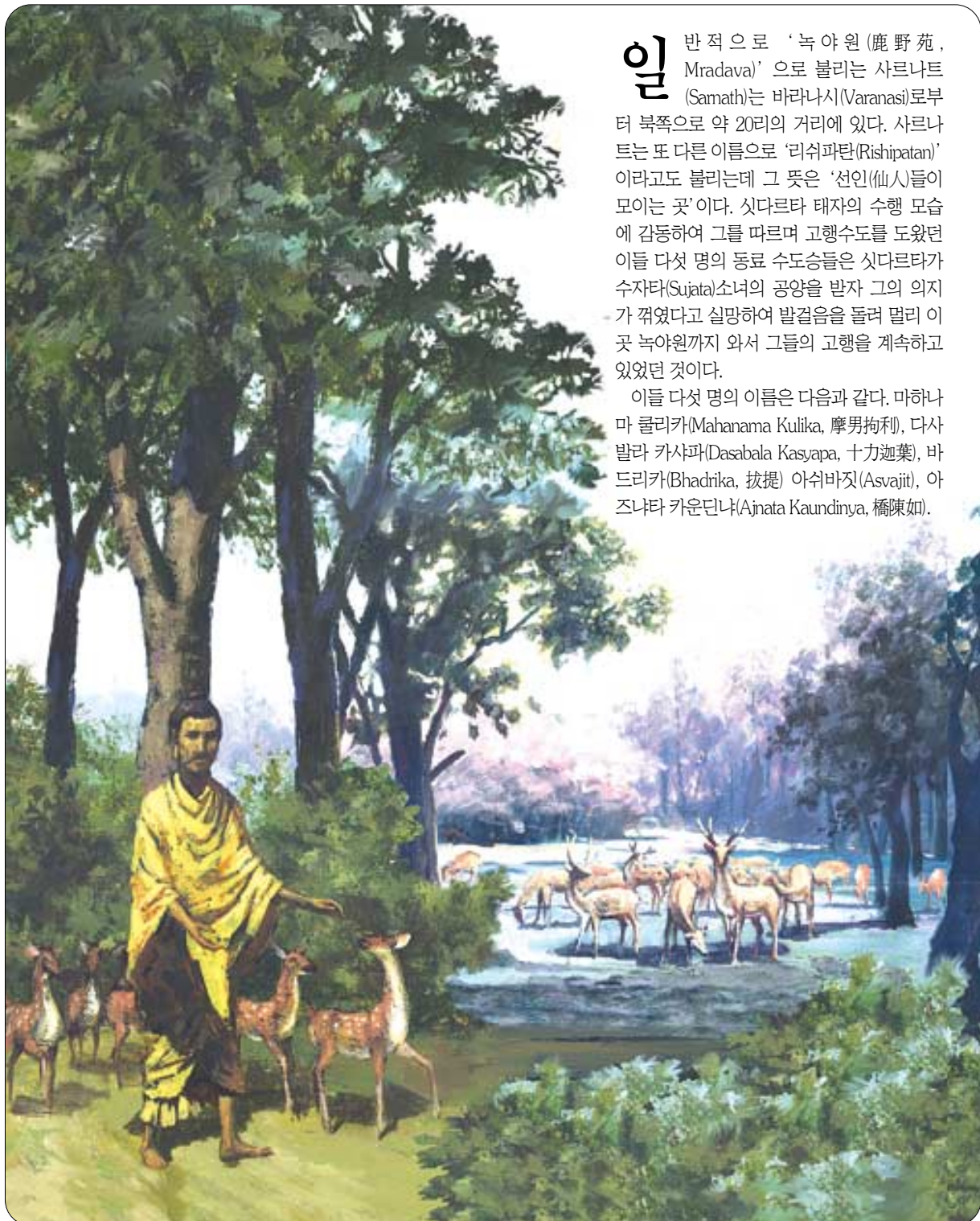


사카무니 부처님은 크게 실망하였다. 사실 알라칼라마 선인이나 웃다카 라마푸타란 두 스승은 이미 출가하여 수십 년 이상씩 수행하고 있었기에 붓다의 새로운 깨달음을 받아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또 누구를 찾아 갈 것인가. 아침 햇살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었던 산봉우리가 없다면 이제는 그 다음 높은 언덕을 찾는 길 뿐이다. 그리하여 그 모두의 힘으로 저 깊은 계곡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건져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던 중 마침내 부처님의 고행시대에 함께 수행했던 다섯 명의 동료들을 생각해 내었다. 그들은 바라나시의 녹야원(鹿野苑, Migadava)에서 여전히 그들 나름대로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보드기야에서 바라나시까지의 걸어서 12-13일이 걸리는 먼 거리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을 찾아가 그가 깨달은 법륜(法輪)을 돌려주기 위하여 먼 여행을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녹야원(鹿野苑, Mradava)'으로 불리는 사르나트(Sarnath)는 바라나시(Varanasi)로부터 북쪽으로 약 20리의 거리에 있다. 사르나트는 또 다른 이름으로 '리쉬파탄(Rishipatan)'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뜻은 '선인(仙人)들이 모이는 곳'이다. 싯다르타 태자의 수행 모습에 감동하여 그를 따르며 고행수도를 도왔던 이들 다섯 명의 동료 수도승들은 싯다르타가 수자타(Sujata)소녀의 공양을 받아 그의 의지가 꺾였다고 실망하여 발걸음을 돌려 멀리 이곳 녹야원까지 와서 그들의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다섯 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마하나마 쿨리카(Mahanama Kulika, 摩男拘利), 다사발라 카사파(Dasabala Kasapa, 十力迦葉), 바드리카(Bhadrika, 拔提) 아쉬바짓(Asvajit), 아즈나타 카운딘나(Ajnata Kaundinya, 憍陳如).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은 인도의 토속종교인 시바(Siva)신과 아리아인의 비슈누신 사이에서 방황하며 요가의 행위를 통하여 선정(禪定)의 희열을 맛보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고행하는 모습을 숭배하였기에 극단의 고행으로 동료들의 존경심을 모으고 또 그 자신도 육체의 괴롭힘을 통하여 최고의 이상에 도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행법은 부처님도 한때 시도해 보았던 것이 아니던가.

이들 다섯 명의 옛 동료 고행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난 붓다는 가야로부터 라즈기르, 나란다, 파르나, 바라나시를 거쳐 이곳 사르나트의 녹야원까지 도착하고 있었다. 무려 20여일의 긴 여정으로 몸이 피로하게 된 붓다는 우선 바라나시 성으로 들어가 공양을 마친 다음 다시 동쪽 쪽으로 나와 사르나트에 도착하니 어디선가 아름답고 순진한 사슴들이 뛰어나와 붓다의 녹야원 도착을 환영하며 따랐다.

이때 5명의 고행자들은 붓다가 멀리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고행에 실패하고 다시금 자기들과 합류하고 싶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한 끝에, 붓다를 냉대하여 그를 반성 시키자고 모두가 합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이들 다섯 명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다. 비록 그들의 고행 대열에서 이탈하여 결국은 홀로 부처님이 되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고행의 의지를 잃고 중도 탈락한 동료에게 섭섭함을 표시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한편 5명의 고행자들도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으로 옛 동료들을 냉대하여 교훈을 주자고 하였지만 붓다가 슬기로운 미소를 입가에 띠고 가까이 접근해 오자 그만 자기들끼리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반가운 마음이 생겼다. 이때 이들 다섯 명의 고행자들은 붓다의 두 눈에서 뿜어 나오는 광채를 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스러운 기운이 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 이 사람은 옛날 우리들과 같이 고행을 했었던 그 싯다르타 태자가 아니로구나?"

고행자들은 누가 먼저인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붓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